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오늘 주일공동예배는 임채정 선교사님께서 설교하시고 가족이 찬양하십니다. 목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교회운영위원회 정기 회의가 오후 2시에 모입니다.
- 금년 여름공동체생활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함께 모여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금년 생활표어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에 맞추어 7월 첫째 주일부터 8월 첫째 주일까지 주일공동예배 설교를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내면화합니다. 마음을 모아 주일공동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7월은 교육과 훈련의 달로 여름공동체생활을 준비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종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26 호

2021년 6월 27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시면서 하신 인사의 말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요한복음 20:19)

이 말씀이 너무나 간절해지는 요즘입니다.

세계 각처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소식들은 점점 뉴스를 피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정말 그럴까 싶은 정도의 사건과 사고가 난무하고, 너무나 생생한 묘사와 영상자료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지금 내 옆에서 바로 일어난 듯 강한 충격을 남깁니다.

‘평화’라는 단어는 어느새 사라지고 불안과 공포, 두려움과 걱정, 분노와 폭력이라는 단어가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평화로운’이라는 단어는 관광지어나 어울릴 법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의 사람들은 이제 평안을 묻기에도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계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심리적인 우울과 불안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마스크는 여전히 불편하고, 원활하지 않는 소통은 오해를 낳고 관계의 단절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마태복음 5:9) 라는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장 전쟁을 없애고, 불의를 모두 제거하며, 정의를 부르짖으면 이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깊이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사회, 폭력이 사라지고 불의와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겠지요. 그래서 “피스(peace)”라는 말이 구호나 인사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생겨난 이래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평화를 단 한번도 이뤄낸 적이 없으며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폭력의 소식이 끊임 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폭력을 없애려고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를 볼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평화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고난과 고통 중에 누리는 평화이며, 죽음 앞에서 가지게 되는 태도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은 죽음의 칼날 앞에서 사형집행관들을 부담스럽고 두렵게 할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또한, 스테반의 순교 사건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무력하리만큼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런 저항 없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 철저한 희생이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에서부터 해방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집니다.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용서와 양보, 배려와 희생을 하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 평화는 이뤄집니다.

이 평화를 이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이 풍파는 거세지고, 우리를 평화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이 헤아릴 수 없는 평화를 간구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평화를 이뤄야 합니다.

이기적인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품을 때 우리 자신은 어떤 어려움에도 초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맛볼 뿐 아니라 그 평화를 이뤄갈 것입니다.

인류는 지극히 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

<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사도행전 27장

제목 : 바울 일행이 난파를 당하다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449 486 413 292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절~8절 <바울일행이 어렵게 항해를 하다.>

9절~20절 <바울일행이 폭풍에 휘말리다.>

21절~44절 <바울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모두 목숨을 건지다.>

2. 내용의 의미(Why)

바울은 백부장 울리오의 인솔아래 로마행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나 폭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중에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희망과 용기를 분동우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난파당한 병사들은 죄수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지만,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울리오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명령합니다.

바울 덕에 모든 죄수는 죽음을 면하고, 뿐만 아니라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목숨을 건집니다.

3. 의미의 적용(How)

- ① 때를 분별하자. 적절한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항해를 할 때, 멈추어야 할 때를 알자.
- ②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것 같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 ③ 믿는 이들은 구원의 리더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있게 나아가자.

바보들의 지혜

오직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이 어리석음은 자주 조롱거리가 되고 무시를 당한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이야기가 적절한 예이다, 오늘날 그는 태양의 노래를 짓고 동물이나 새들과 평화롭게 지낸 순수한 수도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성 프란체스코는 결코, 태도가 온순한 시인이 아니었다. 열정적인 영혼의 사람으로, 자신의 유산뿐 아니라 몸에 걸친 옷마저도 포기함으로써 가난한 자들과의 일치를 추구했다. 유언에서 부와 제도화된 종교를 매우 엄하게 비판한 탓에, 그의 유서는 그가 '확실히' 성인의 지위에 올랐다고 여겨지기 전에 몰수되어 불태워졌다. 그가 남긴 얼마 안 되는 이야기에는,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영의 깊이가 담겨 있다. 이야기가 너무 남용되어 진부해진 것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자.

주여, 저를 당신의 평화를 위한 도구로 써주소서.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신성한 분이시여,
저로 하여금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그것은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어감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평화주의자 예수] 중에서.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목사
설교자 : 임채정선교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마태복음 11 : 28-30 인도자
28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히브리서 10 : 12,14 인도자
524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마가복음 4 : 35 - 41 설교자
은혜로다 주의 은혜 임채정선교사가정
“ 성령이여 예수를 알게 하소서 ” 임채정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400 다함께
인도자
455(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현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병우 정영옥 / 봉헌위원 : 김병우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은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예수를 알게 하소서

갈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길 요청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할지 말씀하십니다. 성령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며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풍을 만납니다. 예수를 모시고 출항했지만 폭풍은 제자들의 배를 삼킬 듯 거세기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 마음의 상처, 영혼의 메마름. 믿음이 없다면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은 삶의 고통 일뿐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예수께 나아갑니다.

예수를 알아야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 다니지만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그들에게 주님은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됩니다. 그 맛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순절 다섯째주일 기념예배를 맞아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부여 주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정영옥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지난 화요일에 흥련과 백련이 피어나기 시작한 세미원과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 다녀왔습니다. 단아하고 고운 연꽃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먼 길 나들이 값을 충분히 받았다고 싶은 만큼 세미원 풍경은 일품이었습니다. 세미원에서 두물머리로 가는 길을 따라 걸으며 연못에서 놀고 있는 논병아리를 보기도 하고 세한정에 들어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세한도를 감상하고 세한도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며 꾸러기들의 우정을 다짐하며 우정사진도 찍었습니다. 두물머리로 가는 길에 놓인 배다리는 경주하듯 뛰어갔고 강물이 찰랑거리는 두물머리에 도착해서는 더위도 식힐 겸 아이스크림과 연잎핫도그를 먹으며 맛있는 것 먹는 재미를 만끽했지요. 다시 세미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위와 계속 걸어야 하는 피곤함과도 싸워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꾸러기들은 힘을 내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여름엔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야 제 맛이요! 세미원을 벗어나기 전 마지막 길은 냇가에 놓인 긴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조심조심 집중해서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도 꾸러기들에게는 조금 힘들지만 또 재미있는 경험입니다. 돌아오는 차를 타기 전에 연꽃빵을 사서 먹는 것으로 나들이를 마무리했습니다. 차에 오르니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나처럼 차 안에서 오늘 나들이 소감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좋았던 것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을 나누어봅니다. 혹시 힘든 점은 없었는지도 물어봅니다. 소감을 들어보니 우리 꾸러기들 이번 나들이도 즐거웠나봅니다. 근사한 나들이였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에는 어린이들의 자체부서가 4개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여는 어린이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대출해주고 반납해주며 책 정리를 하는 도서부, 운동장에 흩어진 공을 정리하고 끊어진 골대를

배움과 가르침

수리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원하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줄넘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체육부, 학교에 있는 많은 보드게임을 관리하고 어린이들이 쉬는 시간동안 즐겁게 보드게임을 하며 놀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드게임 관리부, 점심식사 후 매일 2~3명이 짝을 이뤄 학교 곳곳을 돌며 쓰레기를 줍고 정리하는 미화부입니다. 모두 자기의 실 수 있는 시간을 쪼개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지만 더운 날씨 속에서도 맑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지난주부터 "6.25 한국전쟁"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주제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원인과 역사적 사실, 그에 따른 아픔과 후속적으로 일어난 일들, 그리고 현재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들로 자라기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이번 주간에는 이따끔씩 소나기가 내리며 6월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주간이었습니다. 멋쟁이들이 스스로 종강을 준비하면서 자치회가 열리고, 대본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멋쟁이들 스스로가 학교 생활은 자신들이 만들어나가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목요일의 공동심화학습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함께 공부하며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담겨있는지 느끼고, 또 그런 움직임의 장벽이 되었던 독재의 폐해 또한 얼마나 큰지 찾아보며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열린수업 시간에는 지난 주에 다녀온 학년별 여행의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다녀온 여행을 재미있고 다채롭게 소개하며 추억을 되새기고 발표 솜씨를 뽐냈습니다. 저녁에는 찜질방에 온 듯한 생일파티가 열렸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멋쟁이들에게 축하를 건네고, 함께 두런두런 먹고 즐겼답니다. 이제 모두가 마음속으로 종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며 뜻깊고 신나는 과정을 가져가도록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사랑의 나눔

지난 주 멧쟁이학교에서는 학년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여행의 계획과 예산을 세우고 같이 장도 보았습니다. 물론 잠도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잤습니다. 학년별 여행이지만 작은 공동체 훈련을 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3박4일 동안 행복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여행 계획을 세웠더라도 갑자기 예상지 못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학년은 마지막 날 저녁에는 학교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행의 일정을 소화하다보니 저녁 식사시간을 지연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바비큐 파티 준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학생들도 나름대로 많이 분주한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옆의 고학년 학생들은 불을 잘 준비했는데 고기가 없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희 학년은 고기가 있는데 불이 잘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14명이 충분히 먹기에는 고기가 부족하다고 예상해보았습니다. 결국은 고학년은 저희 학년에게 준비된 불을 양보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년은 불이 준비 되지 않는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다들 늦은 저녁 시간 때문에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누구나 구웠던 고기를 빨리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년 학생들은 먼저 구웠던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먼저 고학년 선배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이런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광경을 지켜본 교사로서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역시 공동체에서 자라는 학생들은 좀 다릅니다. 결국은 고학년 학생들은 만든 면류와 저희 학년 학생들은 구웠던 고기를 서로 나눔으로서 풍성한 저녁 만찬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요즘 청소년 학생들은 사랑의 나눔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나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때문에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함께 공동체에서 자라는 학생들은 좀 다릅니다. 이런 기본적인 배려와 섬김, 사랑의 나눔과 실천을 통해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을 통해 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나라의 삶을 살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해은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디모데후서 2:1-2

인도 : 권재만 목사

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한반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
 - 한국전쟁 71년
 - 평화 기원을 위한 기도회, 미사
 - 여러가지 전시회와 행사들을 통해 전쟁의 진상이 알려져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 납북자들의 진실규명과 송환을 위해, 이산가족들의 만남과 위로를 위해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밝은누리>
 - 밝은누리 교육공동체[도토리어린이집, 아름다운마을초등학교, 온마을배움터, 생동중학교, 삼일학림을 위해
 - 덩기덕쿵떡, 해원, 밝은봄, 오늘담다 등 창업공동체들을 위해
 - 공동체에 새로 생겨난 가족들을 위해
3. 지역 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위해.
 - 백신 접종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 주 월요일은 낮이 가장 긴 하지였습니다. 요즘은 낮 시간이 상당히 길어져서,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편합니다.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로 보내었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었으나, 계속해서 해야 할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목공소 앞 정리 작업이 있었습니다. 오랜기간 묵혔던 폐목들과 물건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너무 무성해진 나무가지들을 정리하기도 했고,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는 일도 했습니다. 밭에서 난 감자가 식사자리에 올라옵니다. 직접 재배한 작물을 먹을 때는 참 뿌듯합니다. 올해는 작황이 괜찮을 듯해서 기대가 됩니다. 의정부에서는 코로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염 소식에 더욱 긴장하게 됩니다. 모두들 건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정재훈 목사 >